

##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5

### I. 서론

전도자는 7장에서부터 지혜로운 삶의 길을 교훈적 형식으로 제시하며 현실 세계의 문제와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지적, 도덕적, 실천적 능력의 한계를 실감한다. 전도자는 인간의 ( )으로 인해 인간에게서 미래의 소망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긴다. 이어 본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이를 근거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 )하심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 II. 본문

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 )로운 도덕적 통치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외적 주제의 전환으로 인해 앞의 내용과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지혜롭고 바른 삶에 대한 요구가 동일한 맥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도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세상적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 )에 겸허하게 복종하며 살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별히 본장은 ❶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❷현재 세상에 팽배해 있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6,13절). 아울러 비록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 )와 지위를 남용하여 악을 행하고(9절),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❸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기한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12절).

1.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덕적 통치(8:1-17)

본장에서 전도자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7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1) 왕의 권위에 대한 순종(8:1-8)

본 단락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역할, 곧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왕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 )를 가진다.

이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권력(신적 권위)에 ( )하는 태도가 참다운 지혜자의 도리라고 밝히고 있다.

(1) 지혜의 유익성과 귀중성(1)

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1a)

\*\*\*‘누가’로 시작하는 두 개의 의문문은 지혜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물의 이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며, 그것을 안다는 것은 ‘해석’이나 ‘해답’을 뜻한다. 궁극적 의미에서의 지혜자도 없으며, 세상의 이치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②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함(1b)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 )를 의미한다. ‘광채가 나게 하고’는 ( )를 소유하면 그의 사나운 얼굴도 자비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뜻이다.

(2) 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함(2-5a)

사람이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해주신 권한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위임을 받았다(왕상1:38~49).

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므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함(2)

**\*\*전도자는 명령문을 사용해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다. ‘왕의 명령’은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명령을 뜻한다.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맹세’를 뜻하며 왕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②“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3)**

**\*\*왕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말며 그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왕 앞에서 물러간다’는 표현이 무례함, 애정의 단절, 불충을 묘사한다.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직책, 임무를 자의적으로 버리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에서 ‘악한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을 뜻한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왕상1:50~52). 그러므로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왕에게 권세와 ( )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 ③왕의 말은 권능이 있음(4)

**\*\*아무도 왕의 행위에 대해 추궁과 도전할 수 없음을 ( )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함(5a)

**\*\*왕에게 정치적 음모(반란)의 의도를 일절 품지 않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직한 신**

하는 불행(왕의 벌)을 피하게 된다.

**\*\*전도자가 왕(통치자)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인간 정부가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 )하며 섬기는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3) 지혜자의 판단(5b-6)

①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함(5b)

**\*\*어떤 행위나 말에 있어서 적절한 때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 맹목적이며 수동적인 복종을 권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충신이란 적절한 ( )에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처신할 줄 아는 자이다.**

②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6)

**\*\*전도자는 다시 한번 모든 일에 ( )와 판단이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아무에게도 실제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일의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적절한 때’를 아신다.**

**\*\*‘화’는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나 ‘해악’과 같은 어려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맥상 왕에 의해서 행해지는 ‘벌’ 혹은 ‘인간의 무지’로도 해석하기도 한다. 비록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으나 그것을 사람이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4)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7-8)

①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함(7)

**\*\***앞절에서 모든 일에 적절한 때가 있음을 언급했던 전도자가 본절에서는 그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8a)

**\*\***본절은 앞에서 언급했던 인간의 한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바람’에 해당하는 원어 ‘루아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호흡’이나 ( )을 의미한다. 큰 권력을 지닌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 )과 죽음의 문제에 관련해 아무 능력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❶영혼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❷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 나갈 것이므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❸자신의 영혼, 즉 ‘생기’를 계속 죄악으로 오염된 이곳(세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이다.

③“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8b)

**\*\***당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전쟁에 면제될 수 있었지만(신 20:5~8; 8:24,5), 성인이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의무적으로 전쟁에 나가야 했다. 인간이 아무리 교묘하게

잘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할 때 결코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파멸과 이에 합당한 징계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

## 2)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8:9~15)

본 단락에서 전도자는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 받는 모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공의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 )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 (1)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9-10)

#### 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9)

\*\*전도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사의 모든 일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는 고대 행해졌던 폭군 정치의 한 양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전도자는 무능력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독한 행위를 저지르는 데 대하여 한탄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 ②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10)

\*\*“그런 후에”라는 접속사를 보면 앞 절과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는 ‘매장되는 악한 자들’과 ‘거룩한 곳의 출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무덤에 평안히 매장되는 것은 복으로 여겨졌는데, 악인이 심판 없이 평안히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거룩한 곳’은 주로 성전과 관련된 장소들을 가리키는데, 이는 악인이 자신의 악행해도 불구하고 땀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의 악행들이 정죄받지 않고, 잊혀지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❶악인들이 악을 행했던 성읍에서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죄악에 대한 마땅한 정죄 없이 그 악행에 대한 기억마저도 잊힌다는 것과 ❷악인의 평안한 죽음과 성전에서의 출입과는 대조적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죽어서 전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 두 해석 모두 이 땅에서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 악의 멸망과 정의의 승리(11-13)

### ①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함(11)

\*\*전도자는 지속적으로 악인에 대한 정당한 보응의 부재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곱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고 공의롭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여러 ( )가 있기 때문이다.

### ②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함(12a)



\*\*본절에서 언급되는 많은 악행과 긴 수명은 전통적인 보응 사상 안에서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 전도자는 자신이 진리로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의 세상의 한계 속에서 ( )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③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됨(12b)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 ), 의, 위대하심 등을 깨닫고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며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전도자는 이것을 여호와 신앙 안에서 깨닫고 이것이야말로 ( ) (12:13)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13)

\*\*본절은 전도자가 믿고 있는 전통적인 보응에 관련된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앞절의 내용과는 다르게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 )와 같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인생의 짧고 ( )을 표현한다. 또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없다.

(3) 다시 반복되는 현실의 모습(14-15)

본 단락은 실제로 땅 위에서 악인과 의인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대칭이 되

는 구조로 전달하고 있다. 본절의 첫 문장과 끝 문장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헛됨’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부조리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①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음(14a)

②악인들의 행위로 인해 벌을 받는 의인이 있음(14b)

③의인들의 행위로 인해 상을 받는 악인이 있음(14c)

\*\*12절과는 반대로 악한 행동에 대한 보응을 의인이 받고 있으며 선한 행동에 대한 보응을 악인이 받고 있다. 일반적인 보응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실망한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④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함(15a)

⑤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15b)

⑥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그러한 일(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임(15c)

\*\*전도자는 구조적 모순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 )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 )대로 사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의 날을 염두에 두고 매일의 생활을 하나님의 ( )로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충고한다. 전도자의 이와 같은 가치관은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확신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므로 본 단락을 통해 ❶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양심의 평안과 희락의 삶을 소유할 수 있음과 ❷의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되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으며, ❸악인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번영할지라도 ( ) 아래에 매일 수 밖에 없어 의인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성도들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 3) 하나님 섭리의 오묘함(8:16-17)

앞 단락과 대응되는 내용으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불가해한 주권에 대한 이해가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다. 전도자는 “능히 깨달을 수 없다”(17절)는 말을 반복함으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16)

\*\*전도자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깨닫기 위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전까지 살펴본 것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본절에서는 ( )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17a)

(3)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알지 못함(17b)

(4)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것임(17c)

\*\*전도자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 알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 )  
를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신의 관찰의 결과로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모든 일들의 이치 (뜻과 계획)를 다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본 장을 통해 전도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서 주관되는 섭리에 대해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❶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칙에 따라 멸망되는 것과 ❷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비밀스러우므로 때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권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 )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 )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